



김지현

Frontend Engineer

기능 구현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듭니다

퍼블리셔로 시작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면서,
UI/UX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디자인을 코드로 구현하는 경험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배움을 즐기며 팀과 함께 성장하는 개발자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처음 사용해보는 기술이나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늘 학습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빠르게 습득해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게 즐겁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끈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팀원들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bout

전화번호
010-9321-1849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https://jhm-work.com/>

이메일
jh418531@gmail.com

GitHub
<https://github.com/jihyeonkimm>

Skills

Frontend
React.js, Next.js, TypeScript, JavaScript, React Native, Styled-Components, HTML, CSS

Collaboration
Slack, Notion, Jira, Confluence

Tools
Git, GitHub, GitLab, SVN, Postman



대한상공회의소 소통 플랫폼 'Sople' 리뉴얼 개발

(주)넥스트컬쳐 | 2025.04 ~ 2025.07

<https://sople.me>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ople websit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the Sople logo, a search bar labeled 'AI 검색', and icons for notifications and user profile. The main header is '교양이 연구소'.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links: '홈', '교양이 연구소' (selected), '소플 뉴스룸', '소플 서베이', '리플레이', '오늘의 지식', '커뮤니티', and '기업에 바란다'. Below the sidebar is a blue button labeled '글쓰기'.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ction titled '교양이 연구소 미션' with a cartoon owl character. It includes text about the mission and a call to action: '교양이 연구소 찾기'. There's also a section for '밥선생' and '최프로'. A central banner displays an article thumbnail with the title '적응력이 뛰어난 전자자동화된 온실님이 좋아할 만한 아티클'.

개요 📄

React, TypeScript, Next.js로 개발한 직장인 소통 플랫폼 웹사이트입니다.

SVGR을 통한 아이콘 컴포넌트 자동화를 구현했으며,

Storybook을 통해 컴포넌트 중심 개발 및 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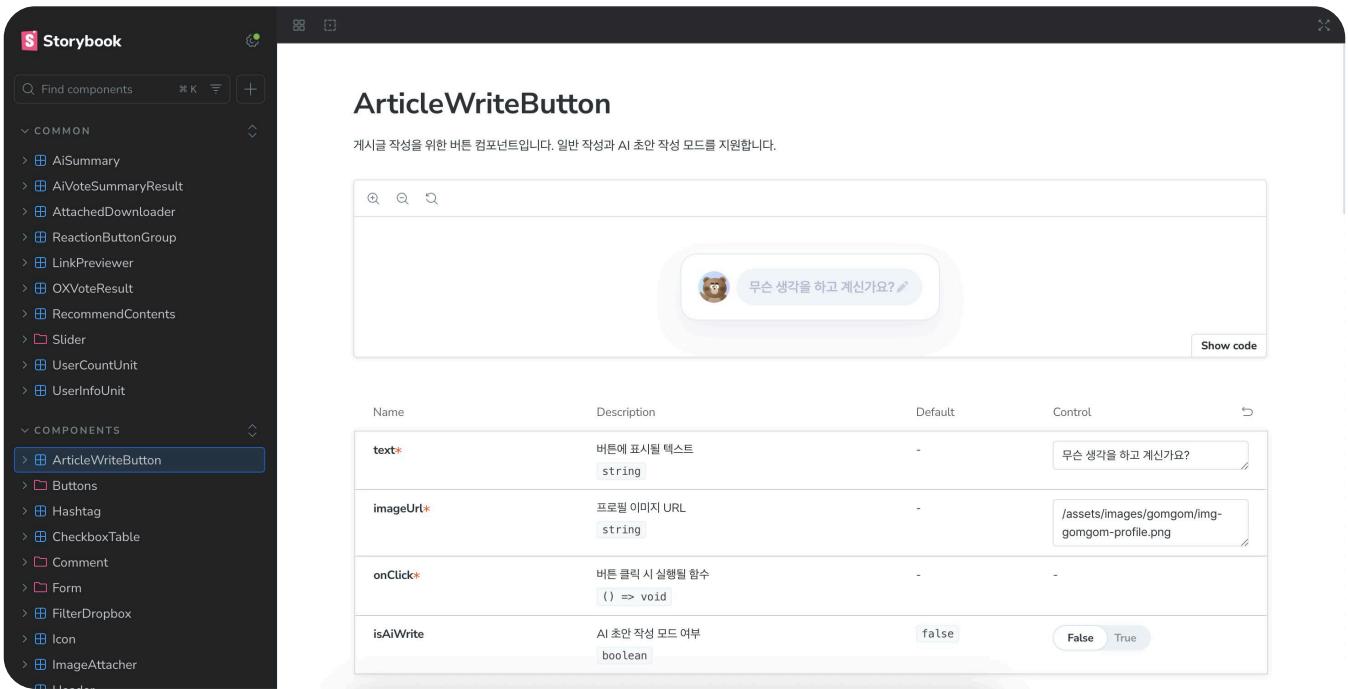
역할 💬

- 팀원들과 업무 분장을 주도해서 각자 업무 분배 및 공통 컴포넌트 설계
- '교양이 연구소', '커뮤니티', 'マイページ'의 UI 및 화면 구현 및 API 연동
- SVGR로 아이콘 컴포넌트 자동화 구현

Skills 📄

TypeScript, React, Next.js, Styled-Components, Storybook

현실적 설득으로 이끌어낸 변화: 팀 효율성 개선을 위한 Storybook 도입



팀원 3명이 40여 개의 공통 컴포넌트를 각자 담당해서 작업하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Storybook을 도입하면 팀원들끼리 '이거 어떻게 써요?' 물어볼 일도 줄어들고, 개발할 때 필요한 컴포넌트를 빠르게 찾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 도입이나 학습에 보수적인 팀장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신기술 제안 시 "또 배워야 하나"라는 반응이 패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Storybook에 대해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득했습니다.

"이 컴포넌트 어떻게 써요?"라는 질문을 팀장님도 들어보신 적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프론트엔드 팀원들끼리 서로 각자 작업한 컴포넌트가 어떤 것인지,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개발 작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 개발 기간이 많이 촉박했기 때문에, Storybook을 도입하여 서로 불필요한 질문 시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작업 시간도 더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팀장님도 촉박한 개발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기에,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공감해 주셔서 Storybook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Storybook 사용을 통해 팀원들끼리 컴포넌트 사용 질문이 약 80% 이상 감소했고, 컴포넌트 작업 기간으로 잡았던 20일보다 단축하여 14일 만에 컴포넌트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실무 작업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팀원들을 통하지 않고 Storybook으로 컴포넌트를 파악하여 작업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젝트 특성상 클라이언트의 급한 요청으로 디자인 검토 없이 개발팀에서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디자인 시스템과 실제 운영 중인 디자인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Storybook을 통해 디자인팀이 실제 적용된 컴포넌트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커스텀 흑으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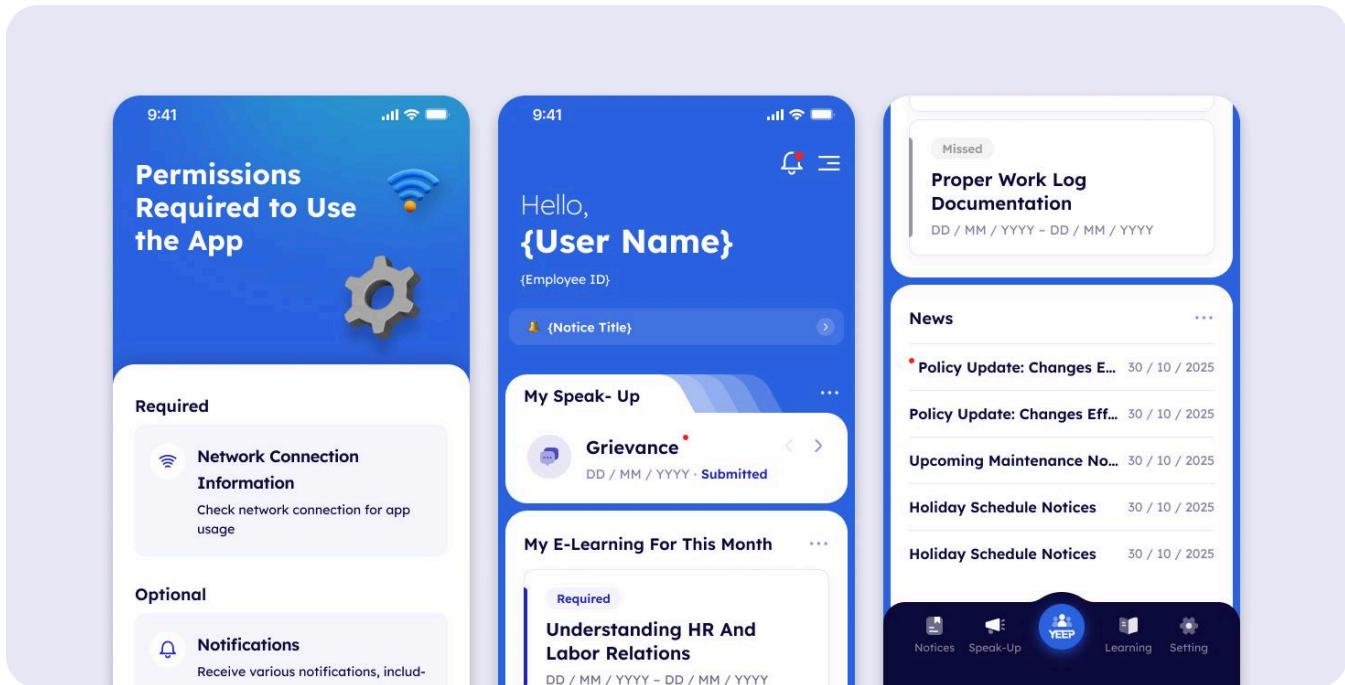
프로젝트 진행 중 스크롤 이벤트 처리, 모바일 환경 감지 같은 기능들이 여러 컴포넌트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useScroll`, `useIsMobile` 등의 커스텀 흑을 만들어서 공통 로직으로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각 개발자가 같은 기능을 다르게 구현하거나 중복으로 개발하는 일이 줄어들고, 버그 수정이나 기능 개선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아이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SVGR을 활용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

기존에 상태별, 컬러별로 여러 버전의 아이콘 파일을 따로 저장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SVG 파일을 React 컴포넌트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명령어만 실행하면 새로 추가된 SVG가 자동으로 컴포넌트화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Icon`이라는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아이콘명, 사이즈, 컬러만 `props`로 전달하면 원하는 아이콘이 렌더링되도록 하여, 아이콘 사용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영원무역 근로자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YEEP' 개발

(주)넥스트컬쳐 | 2025.03 ~ 2025.04



개요 📄

React Native와 Expo로 개발한 공장 근로자용 정보 통합 플랫폼입니다.
뉴스 조회, 이러닝 수강, 피드백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AsyncStorage 기반 로컬 데이터 관리로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역할 🧑

- 공통 컴포넌트 설계 및 Navigation Bar 커스터마이징
- 로그인 화면 및 메인 화면, E-learning, Setting 페이지 UI 및 화면 구현 및 API 연동, WebView 구현
- react-native-svg로 아이콘 컴포넌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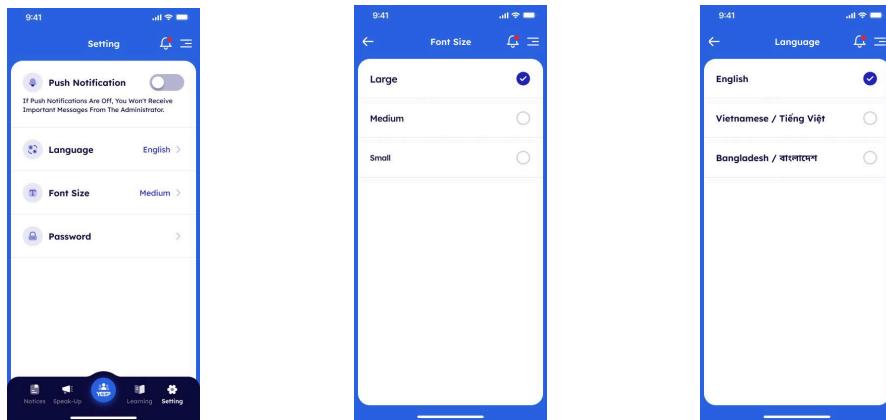
Skills 📄

React Native, Expo, TypeScript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React Native 스타일링 가이드 공유

팀 내에 React Native 스타일링에 대해 익숙하거나 잘 아는 사람이 없어 화면 구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퍼블리셔 경력으로 CSS와 레이아웃 시스템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프로젝트 시작 전 React Native 스타일링을 선제적으로 학습하면 팀의 기술적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React Native 스타일 시스템을 학습하며 실제 코드로 테스트했고, 웹과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들과 지원되지 않는 CSS 속성 등을 문서화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화면을 먼저 구현하여 실제 코드 예시와 함께 스타일링 가이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React Native 스타일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스타일 관련 시행착오와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웹 개발 전문성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이를 팀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켜 팀에게 도움이 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AsyncStorage를 통한 사용자 설정 관리



다국어 지원과 글자 크기 조절 기능이 있어서 Redux로 전역 상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설정값 자체는 바로 저장되지만 화면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어나 글자 크기를 변경해도 현재 설정 상태가 UI에 즉시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syncStorage를 활용해서 설정 변경 시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고 동시에 Redux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실시간으로 UI가 반영되도록 구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앱 재시작 시에도 마지막 설정이 유지되면서 사용자가 설정 변경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SVGR을 활용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

기존에 상태별, 컬러별로 여러 버전의 아이콘 파일을 따로 저장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SVG 파일을 React 컴포넌트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명령어만 실행하면 새로 추가된 SVG가 자동으로 컴포넌트화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Icon이라는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아이콘명, 사이즈, 컬러만 props로 전달하면 원하는 아이콘이 렌더링되도록 하여, 아이콘 사용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주)넥스트컬쳐 | 2024.09 - 2025.01

<https://pa.kcmf.or.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참여누리' platform.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the logo, search bar, and user account options (Login, Member Join). Below the header, a large blue banner on the left says '제작 및 신청' (Creation and Application) and 'CREATE PROGRAM'. It has navigation arrows ('< PREV', 'NEXT >'). To the right, there are two main sections: '참여프로그램 신청 가이드' (Application Guide) with an icon of a video camera and a pencil, and '참여프로그램 신청' (Application) with an icon of a computer monitor displaying a video player and film reels. Both sections have descriptive text and small arrows for navigation.

개요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민 참여형 영상 제작 지원 플랫폼입니다.

React + TypeScript 기반 시청자 참여 페이지와 Fuse React 템플릿을 활용하여 Tailwind CSS를 통한 일관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할 🧑

- 사용자페이지의 공통 컴포넌트 설계 및 GlobalStyles에 디자인 시스템 공통 테마 작업
- '참여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의 스텝 별 폼 입력 및 스텝 진행 구현
- Tailwind CSS를 사용하여 관리자페이지 커스터마이징 및 화면 구현과 API 연동

Skills 📄

React, TypeScript, Styled-Components, Fuse React, Tailwind CSS

참여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의 멀티 스텝 폼 구현

각 스텝별로 컴포넌트를 나누고 상태로 진행 단계를 관리하는 멀티 스텝 폼을 구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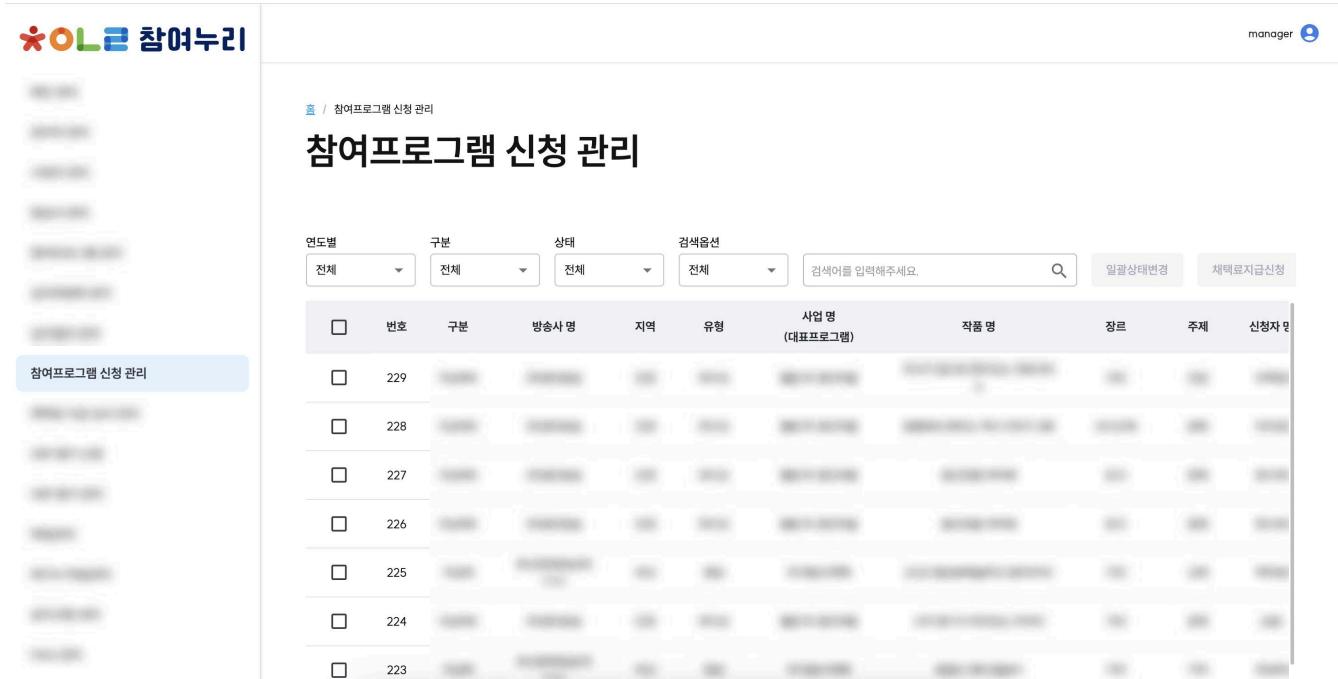
Yup Schema와 React Hook Form으로 단계별 폼 유효성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실시간 입력 검증과 즉시 에러 메시지 표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웹 접근성 자체 검증 및 개선

클라이언트로부터 웹 접근성 준수 요구가 있었지만 공식 검증기관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OpenWAX를 활용한 자체 접근성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시맨틱 HTML 구조를 개선하고, 이미지 alt 속성과 form 요소 label 연결을 통해 스크린 리더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인터랙션 요소 중 실제로는 정보가 없는 장식적 요소들에 aria-hidden="true" 속성을 적용해서 스크린 리더가 불필요한 내용을 읽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자 페이지 구축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참여프로그램 신청 관리' (Participant Program Application Management) pag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Home' and '로그인' (Login). Below the header, a breadcrumb navigation shows 'Home / 참여프로그램 신청 관리'.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lumns: 번호 (Number), 구분 (Category), 방송사 명 (Broadcast Name), 지역 (Location), 유형 (Type), 사업 명 (대표프로그램) (Program Name (Representative Program)), 작품 명 (Work Name), 장르 (Genre), 주제 (Subject), and 신청자명 (Applicant Name). The table lists seven entries, each with a checkbox in the first column and a blurred number from 223 to 229. Above the table are several filter dropdowns: 연도별 (Year), 구분 (Category), 상태 (Status), and 검색옵션 (Search Options), along with a search input field and a search button. To the right of the table are buttons for '일괄상태변경' (Batch Status Change) and '체택료지급신청' (Payment Application Submission).

Fuse React 템플릿과 Tailwind CSS를 활용해 관리자용 대시보드를 구축했는데, Fuse 템플릿의 Material-UI 기반 컴포넌트와 Tailwind의 유ти리티 클래스를 조합해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전역 상태로 관리해서 한 메뉴에서 신청서의 심사 상태를 변경하면 다른 메뉴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관리자가 여러 메뉴를 오가며 작업할 때도 최신 상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넥스트컬쳐 | 2024.07 - 2025.09

<https://survey-dog.com>

개요 📁

React와 TypeScript로 개발한 설문조사 제작 플랫폼입니다.

컴포넌트 기반 아키텍처를 통해 다양한 설문 형태를 공통 컴포넌트로 처리하는 확장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질문 조합에서도 깔끔하고 일관된 폼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역할 🧑

- 공통 컴포넌트 설계 및 GlobalStyles에 디자인 시스템 공통 테마 작업
- 프로젝트 내 모든 페이지 및 컴포넌트 설계 및 UI와 화면 구현
- 인터랙티브한 애니메이션과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한 랜딩페이지 개발

Skills 📄

React, TypeScript, Styled-Components

디자인팀과의 적극적 의견 교환을 통한 동적 레이아웃 컴포넌트 최적화

단일응답형, 복수응답형, 장문형 등 다양한 질문 유형과 제목, 설명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오도록 유지하면서도 질문 개수나 유형이 변경될 때마다 UI가 일관성 있게 렌더링되어야 하고, 다양한 컨텐츠 조합에서도 디자인이 훈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질문 입력 폼과 응답 옵션 폼을 하나의 통합 컴포넌트로 설계하고, 다양한 질문 형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여 반복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도록 검증했습니다. 또한 단일 컴포넌트 구조로 작업하여 버그 수정이나 기능 개선 시 한 곳만 수정하면 모든 질문 유형에 일괄 적용되도록 해서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 컴포넌트로 여러 질문 유형을 처리하다 보니 각 유형별로 다양한 옵션들이 조건부로 노출되거나 숨겨져야 했고, 이에 따른 컴포넌트 내 요소 배치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디자인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옵션들의 최적 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습니다. 질문 유형이 변경될 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옵션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레이아웃 안을 함께 검토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가장 직관적인 구조를 도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이아웃 깨짐 현상을 방지하고 개발 효율성과 유지보수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디자인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용자가 편의성을 높인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형 시스템을 적용한 응답자 페이지 구현

*필수 입력
2025년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보여주세요.

성장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기타 0/50

이전 원료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편리하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응답자 페이지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단일응답형, 복수응답형, 텍스트 입력형 등 다양한 질문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응답 체크 옵션들이 나타나야 했는데, 어떤 질문 조합이어도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표시되도록 유연한 컴포넌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응답자가 현재 진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단에 프로그레스 바를 구현하여 전체 질문 중 몇 번째를 진행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했습니다.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응답자들이 끝까지 설문을 완료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